

광주시내 교통 흐름 빨라진다

울 1,500억 투입 광주~화순 도로 등 22개 노선 신설·확충

광주시내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2일 “광주시내 주요 간선 도로와 진·출입로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올해 모두 1천500억원을 투입해 신규 6개 노선 포함 22개 노선(중공예정 3건 포함) 63k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출·퇴근길 교통체증과 물류비용을 가중시켜온 도심의 교통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추진될 주요 신규사업은 백운주유소~월산마을(1.6km), 하남산단외곽도로(16.43km), 일곡~용진간 확장(1km), 광주~화순간 확장(2.4km), 동아여중~남부경찰서간 확장(390m), 시청사~유촌마을간 도로 개설(640m) 등 6건이다.

이 가운데 백운주유소~월산마을 구간은 화정동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기여하는 한편, 백운광장의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화정동 주민들은 백운광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우회 도로로 개설에 따라 시내 외·출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표적인 체증 구간이었던 광주~화순간 교통 흐름도 크게 개선된다. 이달에 착공될 확장공사는 광주~화순간 4차로(폭 18m)를 8차로(40m)로 늘리는 한편 병목현상이 심한 화순 너릿재 터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600억원(국·시비 각각 300억원).

또 눈에 띄는 사업은 시청사 뒤편~유촌마을 도로 개설 공사다. 광주시는 유촌마을 등 서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대를 위해 시청사 뒤편(의회동)에서 광주천을 건너 유촌마을로 연결되는 교량(128m) 건설을 포함해 640m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

무진로 종점인 60호 광장에서 어등산 관광단지를 거쳐 과학기술원을 연결하는 하남산단외곽도로(11.5km) 공사도 오는 4월 착공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산단 앞국도 13호선 대채 우회도로 개설과 함께 호남고속도로 북방산IC가 개설돼 하남산단 진입도로와 광산IC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 사업으로는 광산구 본덕동~일곡 구간(18.5km)과 호남고속도로 동림 나들목에서 고창~담양간 고속도로를 북광주 나들목까지 연결하는 침산단(2단계) 진입도로로 착공된다. 여기에다 올 연말에는 수완~첨단

■ 새로 개설·확장되는 광주시내 도로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길이=11.5km 폭=30~35m	3,203
일곡~용진간 도로 확장	길이=1.0km 폭=30m	544
광주~화순간 도로 확장	길이=2.4km 폭=18~40m	600
동아여중~남부경찰서간 확장	길이=390m 폭=25m	81
시청사~유촌마을간 도로 개설	길이=640m 폭=35m	168
구송원대학 뒤편 도로 개설	길이=500m 폭=20m	93

지구를 연결하는 광로 개설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수완지구 입주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은 광주시 도로과장은 “지난해 제2순환도로 개통에 이어 이번엔 시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등이 완료되면 시내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교통불편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킹덤 데이 퍼레이드 박광태 광주시장과 부인 정말례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리는 ‘킹덤 데이 퍼레이드’에서 ‘인터내셔널 그랜드 마셜(단장)’로서 행렬의 맨 앞에 선 채 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킹덤 데이 퍼레이드 집행위원회로부터 ‘국제평화상(International Peace Award)’을 수상했다. <광주시 제공>

“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 적극 검토”

인수위 “후 당선인 공약 새정부 정책 반영”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광주시의 숙원 사업인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광주시와 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위는 21일 오후 대통령인수위 법무부 과위원회를 방문해 ‘한국민주주의 전당’과 ‘민주공원’의 광주 건립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는 건의문에서 “광주시가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들 시설 건

립의 최적지”라며 “인수위의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민주주의 전당과 민주공원 광주 유치는 지난 대선에서 당선인과 한나라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새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광주 유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인수위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이들 시설의 광주 유치 전망이 매우 밝다고 판단하고 이 당선인의

광주 방문 때 다시 한 번 건의하기로 했다.

국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민주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한국 민주주의의 전당’은 3천5천여평의 부지에 1천400억원의 국비를 들여 건립될 예정이며 상설 전시관과 사료관, 연구소 등을 갖추게 된다.

이들 민주화 기념시설이 광주에 유치될 경우 한말의병활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을 통해 형성된 의항과 민주도시로서 위상이 확고하게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후식기자 who@

작년 광주지역 화재 인명 피해 16개 시·도중 최저

1만명당 0.24명...전국 평균 절반 수준

지난해 광주지역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률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지역의 인구 1만명당 인명 피해는 0.24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이같은 피해는 전국 평균 0.48명의 절반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울산 0.57명, 대전 0.44명, 부산 0.42명 등이었다.

지난해 한 해동안 광주에서는 1천386건의 화재로 사망 7명, 부상 27명의 인명피해와 38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는 발생 건수로 전국의 2.9%, 인명·재산 피해로는 1.5% 수준이다.

광주지역 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담배꽂초와 불장난 등 ‘부주의’가 827건(59.7%)로 가장 많았고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이 320건(23.1%), ‘방화’ 또는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134건(9.7%)이었다.

최정주 소방안전본부장은 “광주의 인명 피해 발생률이 낮은 것은 소방관 및 시민들의 안전문화 확산 노력과 효율적인 현장 대응활동이 좋은 성과를 낸 것 같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동구청 지방세 안내

휴대폰 문자 서비스

동구청이 광주에서는 최초로 지방세안내 휴대폰 문자 전송 서비스(SMS·Short Message Service)를 실시한다.

동구청은 22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정기본 부과와 납기·이의신청 결과의 신속한 안내와 납세 편의의 시책 홍보를 위해 광주시 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세안내 휴대폰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안내 문자서비스는 고지서를 우편발송하는 현재 운영방식이 주소와 거주지가 다르거나 장기 출타 또는 맞벌이로 인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납세정보를 제때 통보를 받지 못했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자서비스 신청은 전화 062-608-2253나 동구청 세무과 홈페이지로 가능하며 서비스를 원하지 않거나 납세의무 소멸시 자동으로 해제된다. /안현주기자 ahj@

한국복지재단 광주본부

어린이재단으로 개명

한국복지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유길원)는 최근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연계성, 어린이의 인권·복지를 위해 어린이재단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했다. 어린이재단은 지난 1996년 기독교 아동 복리회 광주본실을 개설, 지역사회 복지 사업을 시작으로 ▲불우아동 결연후원 ▲가정위탁보호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종형 기자 glee@

김대중컨벤션센터 작년 경제 파급 효과 3,455억원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지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시장과 회의실 운영 등으로 3천455억여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

이는 센터가 자체 집계한 지난 2006년 2천500억원에 비해 1천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금액은 김대중센터에서 개최된 행사 횟수, 참가객의 평균 지출액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며 여기에 자·간접적 생산효과, 부가가치, 고용창출효과 등도 고려됐다.

전시장의 경우 지난해 26건의 전시회가 열려 3천339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3천798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

수영장 월 이용권 ‘생리 할인’ 논란

시의회 조례 추진...“수치심 유발” 지적

광주시의회의가 생리 기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월 이용권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165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

의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 가운데 13세 이상 49세 이하 가임기여성(생리를 하는 여성)에 대해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또 개인적 건강과 몸 상태에 따라 생리 연령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 이의 여성에 대해서도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5세 이하, 49세 이상의 경우 ‘생리를 하는 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최고 품질 전문조사업체 PIA

PIA탐정 · 민간조사 전문자격인기!!

“취업, 창업, 프리랜스 별칭, 민간조사 전문가로 활동!! 각종 사건, 사고조사, 사생활, 재산, 정보, 자료수집 등”

PIA 탐정이 뜬다

PIA 탐정 자격은 전문 자격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PIA 탐정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과 사고를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 011-371-7776

소비자 만족도 1위!!

무등산업 (주) 무등산업

011-371-7095 / 011-691-7701

무등산업은 소비자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